



교육의 차이



정혜정

평택대학교 교수
031-610-8110

교직 생활을 시작한지 벌써 14년이 되었다. 아침이면 학교에 출근하여 하루 종일 학생들과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생활한지 14년, 처음 평택대학교 강단에서 우리 과 학생들을 만나 인연을 맺었던 것이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그 사이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터전에서 생활의 터전으로 옮겨갔고, 우리과 1회때 학생들은 벌써 사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해 한해 학생들의 변화를 보면서 나도 많은 시간을 벌써 학교에서 보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첫해에 배움을 같이 했던 학생들은 벌써 아기 엄마 이빠가 되어 있고,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긴축 아이를 데리고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내게 찾아오는 제자들을 볼 때면 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보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얼마 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가 보낸 편지 한통을 접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자기 인생의 변화를 일깨워준 교수님께 최고의 감사사를 드리고 싶다는 편지였다. 이것이 바로 교단에 서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모든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나와 배움을 같이한 제자들은 사회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하루하루를 번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총 16년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담당하게 될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때로는 학교생활이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미래에 위한 설계를 세울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다.

이이가 태어나 일정한 나이가 되어 학교를 보내게 되면, 부모는 나름대로 자기의 아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고, 또한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실재를 세우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때부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내가 키시 무엇이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공부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시험을 치고 나면 초등학교때부터 일등부터 꼴등까지 등수가 매기지게 되고, 그 등수에 의해서 인생의 성적을 매기기도 한다.

어려서부터 경쟁속에 삶이 익숙해서인지 인지 무엇이든지 경쟁을 통해서 이기고자 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어려서부터 형성되어지고 있다. 때로는 학교 성적이 사회 생활에서의 성적

이 될 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 요소가 아직도 성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의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많은 행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해마다 교육정책을 바꿔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이란 말을 거론하게 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단어가 주입식교육이란 용어일 것이다.

그러나 얼마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세계의 경영대가 10인에 선정되었고, 타임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던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은 인터뷰에서 말콤 글래드웰은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했다고 하였으며, 그러나 이러한 주입식 교육을 통한 국가 성장을 기반으로 교육에 새로운 것을 쌓아야 하며, 이미 획득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식 교육에 반하여 미국의 어린이들은 기본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 주입식 교육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기존의 형태대로 어린이들이 끈기를 가지고 충실히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한국의 주입식 교육은 어린이들이 일반적인 수준의 교육을 향상 시키는 방법이고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기초지식을 이루고 나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지성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환경적인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본인의 노력과 환경적 여건이 이루어져야 훌륭한 학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혼자만의 노

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11달째 미국에서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내가 느끼던 것과 상당히 공간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일단 교육정책의 차이를 느끼기 전에 큰 교육환경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외적인 교육환경의 차이는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전체적인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환경의 변화가 없이는 교육정책이 바뀌고 교육과정이 다소 변화한다 하여도 지금의 제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초등학교때부터 반에서 일등을 해야지 흔히들 얘기하는 명문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경속에서 자란 아이는 성적이 굳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일등을 위해서 오늘도 주입식 교육을 통한 암기식 교육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11달째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4학년 에 새학중인 우리아가 얼마전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표에는 전체 5과목의 성적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5과목 속에는 다시 세분되어 과목별 성적과 담임선생님의 아이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이 기록되어져 있었다. 성적표의 기본적인 형태는 한국과 다르지 않았지만 아이의 발로는 반에서 1/3이 전체과목 A를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성적은 상당히 한국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으로 생각하면 반에서 1/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공동 1등을 한 것이다. 한 반에 1/3이 1등일 수 있기에 미국의 아이들은 등수에 민감하지 않고, 등수에 민감하지 않기에 미국학생들은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때부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해서 등수가 정해지는 한국식 교육과는 다르게 특별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는 것이 없이 그날 배운 학습 과정에 대해서 그날 테스트를 받고, 행동점수와 숙제를 열심히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교육적 시스템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에 성적이 부담감이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음악만 들으면 춤을 출 수 있고, 선생님과 동료들에게 애정표현이 자연스럽게, 꼴찌를 하고 아직 책을 잘 못 읽어도 그것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서이기에 학생들은 마냥 학교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능수가 좋아야 좋은 대학을 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기에 능수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도 명문대학에 대한 선호는 한국과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인들의 얘기로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지면 사회 진출시에 상당히 많은 연봉 차이와 지위 차이를 갖게 되기에 명문대학에 입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학생들은 명문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때부터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는다. 부모가 비싼 명문대학의 진체 학비를 책임져 가면서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입학시키지 않기에 아이들은 본인의 능력과 미래의 실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정할 수 있으며,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한국식 교육과는 다르게 미국식 교육 방식은 너무나 자율적인 형태로 인하여 학생들의 기초 실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짚은 기간 미국에 있으면서도 가질 수 있었다. 방과후에 따로 과제가 특별히 주어지지 않고 금요일부터는 학교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과제가 주어지지 않는 교육방식으로 인하여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교육계에 있는 나로서는 과연 저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소 걱정도 되었다.

지난주에 반났던 학부형중에 한명은 우리 아이들이 하버드대학이나 예일대학 처럼 명문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지만 학비가 너무 비싸기에 본인들이 장학금을 받고 갈 정도가 아니면 입학시

킬 수 없다고 얘기하고 본인과 남편 모두 주립대학을 다녔기에 적은 학비로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딸도 주립대학을 보낼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한국처럼 우리 아이는 꼭 명문대학을 입학해서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적은 학비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부모의 보호속에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전 쟁속에서 좋은 대학만을 합격하기 위한 목표로 12년의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고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게 되면 인생에서 실패를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부모의 지나친 욕심이 곧 학생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어서 결국 사회에서의 역할마저도 결정하게 되어진다. 이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하여 행복지수가 낮은 민족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생각이 든다. 입시경쟁속에서 12년을 보낸 학생들이 모든 학창 시절을 대학 진학을 위해서 보냈지만 결국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와서는 대학을 학문을 위한 장소로 생각하고 나를 위한 발전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도 교육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입찰적인 교육정책에서 학교마다 특성화 정책을 내세워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예전에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나누워 고등학교 교육을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어 지도하였으나, 지금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하는 고등학교도 많이 생겼기에, 학생들이 공부만을 위한 학창시절이나 대학 진학을 위한 학창시절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들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는 교육의 장소가 늘어나고 있다.

대학에서도 예전에 찾아보기 힘들던 여러 전공들이 신설되고 예전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순수학문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대학교육도 예전에는 안기 위종의 주입식 교육이 많았으나

지금은 대부분 실습위주의 학문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사회에 진출해서 금방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으로 변화가 일고 있다.

교육의 변화는 교육정책만 바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과 생각과 모든 것이 변화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를 초등학교때 부터 학교교육에서 교과목으로 신중하여 지도한다고 해서 외국인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암기식 교육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나면 영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되어야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식 교육과 한국식 교육을 어느 정도 혼합하여 교육적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기초 실력이 굳게 다져진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자율성이 보장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이와 같이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으며 졸업후에도 학교를 생각하면 행복해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학교의 지도자를 본인의 인생에 큰 도움을 준 은인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 발전의 첫 걸음은 훌륭한 인재양성에 달려 있는 것처럼 행복지수 높은 창의적인 한국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요인이 빠르게 변모하기를 기대해 본다.

| 기술표준 2009.6